

#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

2018년 ——— 11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9호

발행인 이백연 편집인 김관식  
편집부 한혁준 우승인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송촌동)  
오투기빌딩 308호 문의 042.716.2640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아시아 원산의 한해살이풀, 논벼라고도 불리는 벼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살림에서 '쌀'은 생명살림의 열쇠말이다. 그래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나라 한알 속에 우주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에게 쌀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4%씩 줄어들고 있고, 2017년 쌀 생산량은 5.3% 줄어든 397만 2천 톤이다.

벼농사는 토양유실 및 홍수를 방지하고, 국토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오랫동안 일구어 온 농경문화의 정서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래서 쌀은 한국인에게 자존심이다.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는 생산과 소비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을걷이를 하는 이 시기, 쌀을 지켜내고 농업을 살리자는 농정개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가

!

한살림 축산은 경종과 축산이 결합하는 자원순환형 축산방식을 지향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자급률을 높이고, 좋은 사육환경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과 항생제 등의 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살림 한우 주요산지인 괴산과 아산지역은 국내 사료자급률이 40-50%에 달하고, 작은 규모지만 제주 한울공동체는 사료자급률이 100%에 이른다. 그러나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원료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NON-GMO와 유기축산으로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높은 생산비와 생산성 저하의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한우 수급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품위 중심의 사료정책과 사양정책 등이 논의되면서 한살림 축산 기본방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 한울공동체는 소규모 한우생산 공동체로써 지역자립, 지역자급, 지역순환을 지향하는 지역자급축산 실천 현장이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한울공동체의 지역자급 축산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는 가운데 한살림 한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울공동체 소개와 각 생산자 회원의 농업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 우리 한울공동체는 생드르영농조합법인에서 초창기 생드르가 출범하는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중 유기축산과 지역순환 농업을 고민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울공동체라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국산사료 한우 생산, 지역과 공존하는 생산방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는 감명을 주자’ 이게 한울공동체가 출발할 때 합의한 내용입니다. 한울공동체는 공동 작업이나 공동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무 수확이나 무 말랭이, 무 출하, 보리 도정, 이러한 것들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우스밀감과 대파, 보리, 콩, 브로콜리 등을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었는데, 직장 그만두면서 남편인 신만균(현) 한울공동체 대표와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밭을 나가보면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밭을 안 다닐 때 과연 이 일을 누가 했었나, 하고 생각해보기가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쩌다 밭을 안 나가면 찢리는 느낌이 있고 그래요. (웃음) 농사는 꿈을 비롯한 과수 위주로 하고 있어요.

— 저는 목장 하는 게 꿈이었어요. 우연찮게 한울공동체에 밭을 들이면서 소를 키우게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일반 관행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직장 생활을 십여 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울공동체 실무자로 들어와 2년 가까이 일하다가 2012년부터는 전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올해는 메밀도 심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농업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일반 농사도 지었었지만 소 똥에 대한 매력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똥이 참외를 만나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은 농작물이 소 사료로 활용되고, 소의 똥을 가지고 퇴비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죠. 농사는 천혜향과 한라봉 합쳐서 8백 평 정도, 대파와 콩 5천 평 하고 있고 단호박, 보리는 기후적으로 많이는 못 해요.

아까 현장 답사도 다녀왔지만, 순환형 지역 자급축산농업은 손이 참 많이 가고 힘든 일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 온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 소득으로서 소를 키우기 보기보다는, 환경을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도 키워봤고 귀리도 재배하면서 소 먹이로 주고, 지금은 콩이라던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맞는 것이냐’라고는 질문하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작기가 좀 틀려서 작물이 맞물린다는 것, 특히 귀리는 잡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 소 똥은 다양한 면에서 중요해요. 제주에는 하루에 수백 톤이 각종 수산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자원화시켜내지 못한 채 쓰레기로 제주 중산 간으로 가서 땅에 묻혀요. 그래서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잘못된 모순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순환 농업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많은 유기물들을 혼합시켜서 양질의 퇴비로 만들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사실 농사 기술은, 퇴비만 잘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하느님과 땅이 알아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브로콜리 농사도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고, 대파도 일반 대파보다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보면, 화학비료는 자주 뿌리다 보니 대파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일반 재배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순환 방식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더 나아요, 다른 것은 연작으로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가버리는데, 지역 순환 방식으로 가면 연작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수확량이 일반 재배보다 훨씬 많은 쪽으로 갑니다.

—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해보면 친환경 농업이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짓던 방식 그대로더라고요. 농약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고, 화학비료 없이 사람의 분변을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써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콩 농사를 지어도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요즘은 관행농 콩 농사는 농약을 치잖아요. 벌레가 이파리를 갉아먹는 걸 관행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생산량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농약을 치면서 해야 하나,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지금도 쉽지는 않아



요. 남들보다 잡초도 한 번만 뽑으면 될 것을 세네 번 해야 하고 일손이 많이 가는데, 해마다 온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병이 해마다 생겨나니 힘들어요. 그래도 친환경 농법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_\_\_ 소가 우리보다 마치 상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에게 '저 소를 키워서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되돌아오는 답이, '꼭 수익구조보다 밭에 거름으로 하는 친환경 비료를 어차피 써야 하니까'라고 말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더 큰 가보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_\_\_ 한울공동체 현재 농가수는 4 농가입니다. 농가당 15~20두수의 소를 키우고 있고 매년 2회(명절 때) 총 15두수의 소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소를 경제적 가치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2013년부터 한살림성남용인과 함께 국산사료 한우입식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보리, 옥수수, 귀리 등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소를 키워 공급하고 부산물은 거름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과 진행하면서 느낀 점 등을 말씀해주시죠.

\_\_\_ 당시에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자연의 섭리'라는 슬로건으로 국산사료 한우입식운동을 한살림성남용인과 3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남용인 조합원들에게 12두 4,2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5%의 이자를 반영해서 명절 때 한우 모듬 선물세트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국산사료 생산현장과 축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교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한우입식운동은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용인과는 3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살림연합이 받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_\_\_ 저희가 소 거름으로 인해 농작이 잘 되고, 순환농업이라는 농가들끼리의 자부심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국산사료 한우에 대한 가격을 높여서 달라는 게 아니라, 소 거름을 통한 지역 순환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한살림에서 간단한 홍보라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대해서 저희 한울공동체랑 소통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_\_\_ 공동체의 역할은 굉장히 많죠.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역 공동체들의 현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살아 있어야 해요. 친환경 생산자의 기본 역할 외에 지역과 함께 하는 한살림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생산자들이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한살림이라는 이름 아래, '나와 이웃이 같이 한살림 운동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을 바꾸는 일이구나' 라며

진정 한살림을 통해서 함께 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자급축산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환경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것은 지역자급 축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무 세척, 수확 등은 공동 작업을 통해 해결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스한 거예요.

자급형 축산농업의 지향을 한살림 안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살림 또는 한살림생산조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_\_\_ 전국에 생산자들이 많잖아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국산사료 한우가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생산지에서 논의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가치들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_\_\_ 한울공동체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점점 농업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장비를 구입하려니까 어려워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있지만 굉장히 빈약해서, 나머지는 용자로 감당합니다. 생산자연합회에서 축산장비를 공동 장비로 구입할 때 지원해줄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자급축산의 현황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회나 논의 체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2008	( )	가	
			. 2009
	( )	(	
2011	가	가	
가	가	가	2012 15 5,300
, 2013 12	4,510		
	( )		
가	,	가	
,			가

### 1. 깍지벌레

- 깍지벌레는 기온이 높으면 발생 밀도가 높아진다. 주요 피해 작물은 과수 등에 많이 생기고 이상기후로 인해 앞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깍지벌레류가 문제가 되는 과수는 블루베리, 감귤류, 포도, 복숭아, 배, 참다래, 매실, 감 등이 있고, 온실에서 재배하는 수목류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깍지벌레는 과수의 어린 가지에 부착하여 양분을 흡즙 하며 살고 가지를 말라죽게 한다.
- 일반적으로 진딧물과 개미가 공생관계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깍지벌레와 개미도 공생관계이다. 개미는 깍지벌레 약충의 배설물을 먹고, 어린 약충을 물어서 과수 전체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개미는 깍지벌레를 분산시켜주고 천적들을 다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따라서 나무에 개미가 오르지 못하도록 연초봄에 과수 밑동에 끈끈이 롤 테이프를 감아주면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는 개미만 차단해 주어도 약 50% 정도 깍지벌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 깍지벌레는 몸이 왁스 층으로 덮여 있어 방제가 어렵다. 따라서 알 부화시기에는 왁스층이 없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부화시기도 빨라져, 예방위주의 수비 방제를 해야 한다.



### 2. 깍지벌레 친환경 방제 방식 공유

#### 1) 18년도 청포도에 발생하는 깍지벌레 방제 기술(청포도 가루깍지벌레 피해)

- 생산자 : 생산기술연구회 정찬범 회원 (영동생산자모임)
- 품목 : 청포도(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 1,700평



가 가

#### ① 물리적 방제

- ㄱ. 물리적 방제시기(조피작업): 2018년 3월9일~4월2일
- ㄴ. 재료 : 고압세척기 k-250, 30m 고압호스, 회전노즐
- ㄷ. 방제방법 : 충북 영동 산간지역(4월 초까지 영하) 큰 추위가 끝나고 3월부터 포도 눈이 움직이기 전까지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포도껍질 벗기기 작업. 고압세척기 압력은 120bar로 맞추고, 올해 쓸 눈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세밀하게 껍질을 벗긴다.
- ㄹ. 방제효과 : 포도 껍질을 제거하면서 월동 중인 깍지벌레 알 제거 및 포도나무 생육 중 서식지나 은신처인 껍질을 제거해 화학적 방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② 친환경 자재 방제

- ㄱ. 자재 방제시기: 2018년 4월 5일 목면시비 방제
- ㄴ. 재료 : 물 500ℓ + 자닦유황 4ℓ + 해바라기유 2ℓ + 자닦오일 2ℓ + 황토분말 2ℓ
- ㄷ. 방제방법 : 포도 눈이 트기 전(맹아기), 포도나무가 흠뻑 젖도록 동력분무기로 목면시비 함.
- ㄹ. 방제량 : 500ℓ × 6통 = 3,000ℓ
- ㅁ. 방제효과 :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했을 시 전년 대비해서 깍지벌레 피해가 평년 총생산량의 30%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5% 미만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 ㄱ. 자재 방제시기 : 2018년 4월말 ~ 8월말, 15일 ~ 20일 간격으로 엽면 살포
- ㄴ. 재료 : 물 500ℓ + 자닦오일 2ℓ + j인섹터2병(잘들어 2병 또는 특각이

- 파워 2병) + 고삼알코올추출물5ℓ + 백두옹알코올추출물 5ℓ
- ㄷ. 방제방법 : 새순이 나와 생육기 중 15일 ~ 20일 간격으로 물 500ℓ + 유화제2ℓ + j인섹터2병(또는 잘들어 2병이나 특각이파워 2병) + 고삼추출물 5ℓ (또는 백두옹추출물5ℓ)로 SS기 엽면 살포. 7월 10일과 8월 10일 2회 야간에 랜턴을 켜고 깍지가 있는 나무에 집중 살포. 야간에 랜턴을 켜고 보면 깍지가 하얗게 잘 보이고, 개미가 모이는 곳엔 깍지나 선녀벌레가 있다. 깍지가 보이는 나무만 집중적으로 흠뻑 약을 살포하면 방제가 더 쉽다.

위 세 가지 방법 중 제일 좋은 효과는 이 때야 나머지 화학적 방제가 좋게 나왔으며 2018년 깍지벌레 피해를 5%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다. (\*깍지벌레는 이름 그대로 깍지(껍질) 밑에서 월동을 함.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방제를 하면 효과가 큼)

#### 2) 18년도 참다래에 발생하는 깍지벌레 방제 기술

- 생산자 : 생산기술연구회 김찬모 회장(고성 공릉나라공동체)
- ① 깍지벌레 동계 방제
  - ㄱ. 깍지벌레는 2~3월경 꽃 눈이 나오기 전에 동계 방제를 철저히 해주면 여름 깍지벌레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다.
  - ㄴ. 재료 : 물 500ℓ + 황토유황 4ℓ + 자닦오일 2ℓ + 식용유 2ℓ + 황토분말 2kg를 넣고 2회 정도(왕복) 가지에 충분히 살포한다.

#### ② 여름철 깍지벌레 방제

- ㄱ. 늦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 깍지벌레 방제 방법 : 물 500ℓ + 황토유황 2ℓ + 자닦오일 1.5ℓ + 식용유 1.8ℓ를 넣고 가지에 흠뻑 뿌려주면 효과가 있다.



#### ③ 유황에 약한 작물에는 천연 살충제로(은행, 자리공, 마늘, 소나무 수액으로) 4ℓ와 자닦오일 1.5ℓ를 혼용하여 살포 방제한다.

#### 3) 18년도 노지감귤에 발생하는 깍지벌레 방제 기술

- 생산자 : 생산기술연구회 김권호 회원(서제주공동체)
- ① 루비\*, 이세리아깍지벌레 방제 시기 및 방제 재료(노지감귤 600평 기준)
  - ㄱ. 1차 방제시기 및 재료 : 3월 25일 / 물 1,000ℓ + 자닦오일 4ℓ + 식용유 3ℓ + 황토유황 3ℓ + 황토분말 2kg
  - ㄴ. 2차 방제시기 및 재료 : 4월 21일 / 물 1,000ℓ + 자닦오일 4ℓ + 황토유황 4ℓ + 황토분말 2kg
- 대부분 방제가 되었는데 9월이 되어 다시 발생함
  - ㄱ. 3차 방제 및 재료 : 9월 16일 / 물 1,500ℓ + 파라핀 오일(SK엔스프레이) 7.5ℓ + 제충국제(단디탄 공시 2-6-21) 3병 + 달마시안제충국(공시 1-5-48) 2병 + 유도화 우린 물 10ℓ



#### ② 방제방법 : 동력분무기 장대구찌 손방제

#### ③ 화살깍지벌레 방제 시기 및 방제 재료 (노지감귤 1,200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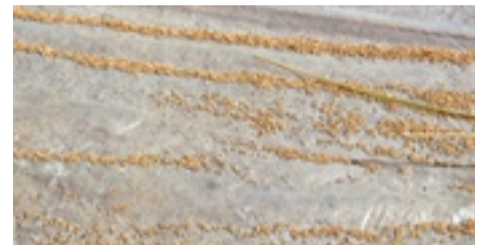
- 동계 방제 1차, 2차는 루비깍지벌레와 동일
  - ㄱ. 3차 방제시기 및 재료 : 6월 17일 / 물 2,000ℓ + 서울환경기계유제(공시3-5-042) 10ℓ + 자닦유황 10ℓ + 크린새우액비 5ℓ





한살림에서는 벼 수매가 완료되는 매년 12월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벼 생산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당해 연도의 벼 수매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해 벼 생산계획량과 수매 가격을 협의하며, 조합원들의 쌀 소비 촉진 행사와 이용 확대 계획 발표, 생산자들의 품위 강화를 위한 다짐도 함께 나누게 된다. 생산자는 고품질 벼 생산 노력을, 소비자는 쌀 소비 노력을 서로 약속하는 자리이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손잡고 천천히 가자고 어깨를 거는 날이다.

2019년 벼 생산 관련 회의는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1시, 대전 대철회관(대전 동구 동서대로1678번길 61)에서 열린다.



## 가

지난 10월 28일(토)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는 한살림서울이 판을 열고 전국의 생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한살림서울 가을걷이 잔치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오전 추수감사제가 끝난 후, 중앙마당에서는 생산자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가을걷이 반짝시장>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말, 7.5도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사망자 2천여 명, 실종자 5천여 명이 발생한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각 공동체에는 기증 물품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가을걷이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로 인해 모든 물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행사 수익금 3,274,000원은 연합회 자체 성금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장 구호를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연이은 기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도네시아 피해 현장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 故

## 가

10

한살림 출범부터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길을 여셨던 故 최재두 회장님의 10주기 추모행사가 10월 17일(수) 충북 음성에 있는 회장님 묘소에서 열렸다. 10주기를 맞아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회장님을 기억하는 추모행사를 이백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추모사로 행사를 열어주셨고, 참석자들의 헌화 및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회장님을 회상하는 이야기 마당에서 이호열 고문은 “회장님은 한살림 창기부터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지셨다. 회장님이 강조하셨던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한살림 초기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두 회장님은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1988년 한살림공동체생산자협의회 창립 시 부회장, 2003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창립 시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살림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고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으시면서 묵묵히 농업살림의 한길을 걸어오신 회장님의 한살림농부의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 주요 활동보고 내용 】

9월 30일 현재, 회원이 2,223가구임.

1. 9월 27일(목)에 여주 금당리공동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음.

9월 27일(목)에 여주 금당리공동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음. 벼베기 행사가 9~10월 중 10곳에서 27대 버스 규모로 진행 중임. 9월 20일에 농업·농촌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지지 방문을 진행함. 2차 회원가입 교육을 가공생산자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2. 쌀 생산지인 괴산, 흥천, 부여, 산청, 경기 지역의 수확량을 공유함.

쌀 생산지인 괴산, 흥천, 부여, 산청, 경기 지역의 수확량을 공유함. 다소 폭염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쌀이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10~15% 정도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을 확인하였음.



3. 조덕희 청년위원장이 10월 8일(월)에 2030청년생산자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하고 2030청년생산자 교류회를 11월 5~6일(화)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한살림서울 가을걷이한마당에 '한살림에 청년생산자가 있다'는 컨셉으로 청년 귀농상담부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 조덕희 청년위원장이 10월 8일(월)에 2030청년생산자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하고 2030청년생산자 교류회를 11월 5~6일(화)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한살림서울 가을걷이한마당에 '한살림에 청년생산자가 있다'는 컨셉으로 청년 귀농상담부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 이계형 정책위원장이 9월 28~29일 연수를 통해 2019년 활동기조, 현장생산관리책임자 배치안, 자가육묘에 대한 정책 논의, 포상 및 징계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 김영숙 여성위원장이 한살림서울 가을걷이한마당에서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함.
- 경중호 가공생산협의회장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함.

4. 윤형근 사무이사(가)가 9월 한 달 동안 이용고가 작년 대비 0.3% 증가한 상황임을 보고함.

윤형근 사무이사(가)가 9월 한 달 동안 이용고가 작년 대비 0.3% 증가한 상황임을 보고함. / 한살림재단의 생명밥차 지원, 후계농-귀농인 지원사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보고함. / 한살림편당의 예치금이 목표치에 부족한 상황이며 기관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고함. / 연합 이사회에서 생산자 과실 없는 농약 검출 시 타 필지는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산지가는 약정 가격으로 하고 공급가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 경북 의성군,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여주시에서 친환경융복합단지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중임을 보고함. / 한살림연합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하는 물류 전문 사업법인을 주식회사 형태인 기존의 사업연합 법인을 활용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함.

【 주요안건 논의사항 】

1. 가

- 경북동부권역협의회 한고을공동체 윤정철, 남영주, 충남북부권역협의회 예산자연농회 표덕열(김정민), 황선덕(백인경) 이상 4세대의 회원가입 승인을 요청함.
- 원안대로 4세대의 회원가입을 승인함.

2. ( )

- 8월 이사회에서 '상벌기준(안)'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정책위원회와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포상 및 징계기준(안)'으로 변경하여 제안하는 내용이며, 핵심 내용으로 한살림생산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포상과는 다르게 징계의 경우는 받는 입장에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징계내용을 차수(예:1차-경고, 2차-물품 출하 중단, 3차-자격정지)에 따라 수위를 나눠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금일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3

- 9월 이사회에서 현 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산자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적인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이에 이병주 대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돕기 위해 목표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제안하는 내용임.
-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 안건 및 보고사항 】

1

- 사무처 내부 회의를 통해서 교육·연수 계획을 정리한 내용임. 추가로 제안할 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교육·연수 진행 시 대상자 선정, 참가자 접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임.
- 원안대로 승인함.

2

- 9월 10일부터 시작된 시민농성단이 단식농성을 종료하고 연대 단체 중심의 1일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생산자연합회는 생산지의 바쁜 사정을 고려하여 10월 31일(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 이에 31일에 집중해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살림생협에서 참여하는 일정 등에 맞춰서 지지방문을 추진하자는 제안임.
- 원안대로 승인함.

3

-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섬의 지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생산자연합회에서 300만 원 성금을 전달하고 향후 한살림 전체 조직적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임.
- 원안대로 승인함.

1

- 지난 회장단에서 황성권역 권선분 생산자에게 500만 원, 숙인농장 정진해 생산자에게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충주공동체의 경우 공선장 운영을 통해 품질 품위를 높이고자 했으나 동해 피해로 공선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특별지원금 500만 원을 집행하기로 함.

2. 1 가

- 지역별로 활동하는 여성생산자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여성생산자 지역 일꾼 양성교육 참가자도 관람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음.

3

- 생산자연합회의 실질적인 귀농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무자와 활동가를 구분하여 의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실무자에 대한 의향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함.
- 향후 생산조직에서 귀농인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이나 의지,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임을 보고함.



### 농정대개혁 촉구 결의문

생명의 농업, 국민을 지키는 농업,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정책을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년 반이 지나는 동안, 남북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유독 농업분야는 수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농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 10일, 4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여 농업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이를 계기로 농민, 소비자, 먹거리단체등이 참여하는 국민농성단이 구성되었다. 우리는 두달 가까이 찬 서리가 내리는 천막을 지키며 간절히 농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의 농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 먹거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농업'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그 약속의 목직함을 가버어 여겨서는 안된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노고를 존중하고, 농업을 통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농업정책 시행하라!  
지난 정부는 GMO식품을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했다.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 유채와 면화가 전국 도처에서 서식하는게 확인되었다. 식약처에서는 급기야 GMO감자의 국내 식용 판매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내년 2월이면 버섯이 식탁에 오르게 된다. GMO감자 개발자는 자신이 기업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되었고, 그로인해 '인류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중심, 산업중심 농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농업을 산업으로 간주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은 농업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라!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환경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미래의 가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이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농업의 가치는 재조명되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남북이 하나되는 농업교류 확대하라!  
남북관계의 개선은 많은 가능성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얼어붙은 한반도에 기적과 같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남과 북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농업은 남북관계에서 서로에게 현실적 도움과 함께 정서적 친근함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통일농업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야 한다. 민간의 농업교류를 즉각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8천만 민족을 위한 농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통해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방식"을 실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가 함께 하길 바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생명의 농업, 국민을 지키는 농업,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정책을 실현해 갈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GMO 가

가

2018년 10월 31일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과 함께하는

